

귀법사[歸法寺]

광종의 지원 하에 창건된 화엄대찰(華嚴大刹)

963년(광종 14) ~ 미상



1 개요

귀법사(歸法寺)는 고려 제4대 임금 광종(光宗)이 963년(광종 14)에 창건한 사찰로 균여(均如)가 초대 주지를 역임하였다.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영남면에 있었다.

2 개경 안팎 대규모 사찰의 창건

귀법사는 963년(광종 14)에 광종 [관련사료](#)의 전폭적 지지를 받으며 개경 나성(羅城) 근처 송악산 아래에 세워진 큰 사찰이다. [관련사료](#) 고려의 수도 개경은 북쪽 산악지대와 동부 및 남부의 평지와 구릉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를 둘레가 약 23km에 달하는 꽤 큰 나성이 둘러싸고 있었다. 나성에는 도성 안팎을 연결하는 25개의 문이 있었는데, 귀법사는 그 중 동쪽 성문인 안정문(安定門) 바로 바깥에 위치하였다. 안

정문 안쪽으로는 성균관(成均館), 순천관(順天館), 현성사(賢聖寺) 등이 있었고 바깥쪽으로 귀법사와 함께 영통사(靈通寺)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귀법사를 비롯하여 이후 건립되는 현화사(玄化寺), 흥왕사(興王寺), 국청사(國淸寺), 천수사(天壽寺) 등의 큰 사찰들은 나성 바로 밖에 세워졌다. 이러한 사찰들은 신앙과 수행의 중심지로서 기능하는 한편, 백성들에게 물품을 나누어 주는 등 자비를 베푸는 역할도 수행하였다. 개경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교통의 요지에 자리잡은 이들 사찰은 국왕 행차 시 숙소가 되거나 피병이나 휴식을 위한 요양 목적 등으로 이용되면서 이궁(離宮)처럼 이용되었다. [관련사료](#) 사찰은 부처님을 모신 종교 시설이지만, 이렇게 국왕이 머물 때에는 정치 업무가 처리되는 정치적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태조 왕건은 919년(태조 2)에 고려를 건국하고 도성을 건립하면서 개경에 10개의 사찰을 세웠다. 이를 태조 10찰이라 부른다. 사찰을 포함시킨 도성의 건설은 태조의 훈요 10조 [관련사료](#) 제1항에서 ‘우리나라의 대업은 반드시 여러 부처님의 힘을 바탕으로야 한다’고 천명한 것과 함께 고려왕조에서 불교가 갖는 중요도와 상징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이후 개경 주변에 수백의 크고 작은 절들이 연이어 건립되는 상황은 위와 같은 고려의 숭불(崇佛) 경향 위에서 이해해야 한다.

개경 주변의 사찰들은 대개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았다. 건물이 1천여 채에 달한다는 보제사(普濟寺) 같은 절들도 몇이나 되었고 원(院)이라는 독립 공간을 부속 공간으로 거느리는 경우도 있었다. 규모가 2,800여 칸에 달했다는 문종의 원찰(願刹) 흥왕사는 흥교원(弘敎院), 천복원(薦福院), 흥교원(興敎院), 정각원(正覺院) 등을 거느렸다. 영통사(靈通寺), 현화사와 같은 원찰이나 귀법사 등도 규모면에서 눈에 띄는 큰 사찰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큰 사찰들은 그 높은 위상을 반영하여 높은 승계(僧階)를 받은 고승들이 주지 스님을 맡았다. 왕실의 원찰이었던 영통사나 흥왕사에는 승통(僧統) 급이, 귀법사와 흥교사·불일사 등에는 수좌(首座) 급이 주지하였다.

3 개경의 대표적 화엄사찰

광종의 발원으로 건립된 귀법사의 초대 주지는 광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화엄종(華嚴宗) 고승 균여가 맡았다. 광종과 균여의 만남에 관해서는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진다. 중요한 일로 외국에 사신을 보내는 의례를 거행해야 할 때 비가 계속 내려 곤란을 겪다가, 균여를 모셔 설법을 듣자 비가 멈추게 되어 광종이 균여를 깊이 존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물론 기록에 나오는 이러한 일화는 광종과 균여의 첫 만남과 지속적 관계를 표현한 것일 뿐, 이러한 신통력 때문에 광종이 균여를 존경한 것은 아니었다. 균여는 화엄학에 대해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던 당대의 대표적 학승(學僧)이었다. 광종이 승과(僧科)를 시행하며 균여의 설을 화엄학의 정통으로 한 것을 통해서도 그에 대한 광종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엿볼 수 있다.

광종은 귀법사가 낙성된 후 균여를 주지로 삼고 절에서 불교 행사를 크게 열어 사람들에게 물자를 베풀어 보시하였으며, 제위보(濟危寶) [관련사료](#)를 설치하여 귀법사를 중심으로 굶주리고 병든 백성을 구호하는 등의 활동을 펼쳤다. 또한, 귀법사를 중심으로 지방의 화엄종 고승들을 불러들인 것을 보아, 이 시

기 화엄종은 광종의 배려 하에 더욱 성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균여는 973년(광종 24)에 입적할 때까지 여생을 귀법사에서 보내게 된다.

광종이 화엄종에 이토록 관심을 기울인 까닭을 신라말~고려초 화엄교단의 상황에서 답을 찾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화엄학은 해동 화엄의 초조(初祖)로 불리는 의상대사(義相大師) [관련사료](#)가 중국 유학에서 돌아와 신라 사회에 전파한 이래 신라 불교의 기반이 되었다. 그러나 이후 사상적으로 분열하여 북악(北岳)과 남악(南岳)으로 나뉘고 말았다. 그런데 10세기 초반 후삼국 시대에 서로 대립하던 고려의 태조 왕건(王建)과 후백제의 군주 견훤(甄萱)이 각각 북악과 남악 계열을 후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고려시대 유일한 고승 조각상으로 남아 유명한 해인사의 희랑대사(希朗大師)는 왕건이 후원하며 스승으로 모시던 북악 계통의 인물이었다. 결국, 화엄교단 내부의 분열과 그 후원자 간의 정치적 대립은, 왕건이 승리하고 후백제가 멸망하면서 남악 계통이 더욱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광종이 북악의 균여를 귀법사 초대 주지로 삼아 개경 불교계의 중심으로 화엄종을 부상시킨 것은 북악을 중심으로 남북악을 통합시키려는 시도였다고 보기도 한다.

4 개경 근교 사찰과 그 지원 세력

광종이 귀법사를 창건하고 전폭적 지지와 함께 귀법사에서 빈번한 법회를 개최한 까닭은 귀법사를 광종 대 개혁 세력 결집을 위한 구심점으로 삼기 위한 의도였다는 평가가 있다. 광종은 귀법사 창건 전인 즉위 초반에 이미 태조의 진전(眞殿)인 봉은사(奉恩寺)를 비롯, 모후의 원찰인 불일사(佛日寺)와 송선사(崇善寺) 등 고려 왕실의 원찰들을 창건하였다. 이처럼 광종은 기록상으로 고려 왕실에서 원찰을 창건하는 전통을 만든 임금으로 평가되는데, 귀법사가 왕실 누군가의 원찰로 창건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그 규모나 중요성 면에서 개경 근교 다른 사찰에 밀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개경과 그 근교에 창건된 사찰들은 이처럼 원찰이거나 원찰이 아니더라도 왕실이나 귀족관료들과 연결된 경우가 많았다. 원찰이란 발원자의 장수와 복을 빌기 위해, 혹은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기 위해 세우는 절로 원래 의미는 지극히 종교적인 시설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개경 부근 사찰의 지원 세력은 대체로 임금이나 왕실, 귀족관료 등과 같은 정치세력인 경우가 많아, 이들을 대시주로 거느리는 사찰 역시 정치적 색채를 띠거나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왕실이나 문벌 집안들에서는 아들 중 하나 이상이 승려로 출가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왕실이나 문벌은 사찰에 지속적으로 막대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시주자일 뿐만 아니라 유력한 불교 종단의 고승들과 세속의 가족관계로 끈끈하게 연결된 불교 지원 세력이었다. 이런 경우 관련 사찰은 그 지원 세력과 정치적 이해를 같이하게 된다.

무신집권기에 그러한 관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다. 1174년(명종 4) 1월, 귀법사의 승려 1백여 명이 성 북문으로 쳐들어갔다. 당시의 무신집권자였던 이의방을 살해하려는 의도였다. 이에 이의방도 군사 1천여 명을 총동시시켜 반격했고,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관련사료](#) 귀법사의 이러한 시도는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오히려 중광사(重光寺)·홍호사(弘護寺)·홍화사(弘化寺) 등의 승도들까지 합세하여 2천여 명이 결집하여 계속해서 공격하였다. 이에 이의방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승도들은 성 밖 인가에 불을 질러 송인문(崇仁門)을 불태우고 성으로 들어와 이의방 형제의 살해를 시도하였

다. 결과적으로 살해 시도는 실패하고 분노한 이의방이 병사를 보내 승 100여 명을 베어 죽인 후 위 절들을 불태우고 물건을 약탈하였는데, 승도들이 이들을 다시 추격하여 물건을 되찾으려 하면서 많은 승과 병사가 다치고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무신정변으로 [관련사료](#) 많은 문벌들이 해를 입자 이들과 가까웠던 사찰 세력이 위기감을 느끼고 벌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5 독서처로서의 사찰

고려시대 사찰의 중요한 사회적 역할 중 하나는 교육이었다. 젊은 학생들은 인근 절로 들어가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무릅쓰고 학문에 열중하여, 절이 교육 기관의 역할도 하였던 것이다. 절에 상주하는 교학승(敎學僧)들은 학문 소양을 갖춘 관리 집안 출신인 경우가 많았고 또 불경을 연구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당대의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글을 익히고 학문을 연마하는 일이 널리 퍼졌다. 문종(文宗) 시대의 명신(名臣)으로 은퇴한 후 사학을 열어 후학들을 양성한 것으로 유명한 최충(崔冲)은 귀법사에서 구재(九齋)의 하과(夏課)를 열어 [관련사료](#) 여름 수련장으로 삼았다고 한다. 절의 이러한 교육적 기능은 조선시대에 들어 서원으로 넘어가게 되었으나, 산세 좋은 곳에 위치하여 조용한 면학 분위기가 조성된 절에서 공부하는 전통은 조선시대에도 계속되었다.

6 스러진 고려의 영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개경의 거대 사찰이던 귀법사는 그간의 영화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폐사되었는지 자세한 내력이 전하지 않는다. 조선중기 문신인 이정구(李廷龜, 1564~1635)의 글에 이미 폐사의 흔적이 나오는 것을 보면 고려 후기에서 조선 전기의 어느 시점에 이미 쇠퇴하여 없어졌던 것 같다. 고려의 왕실에서 중시하던 개경 근처의 사찰들은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되고 수도가 한양(漢陽)으로 옮겨가면서 사세가 크게 축소되거나 폐사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고려 왕실과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고려 국찰(國刹)의 운명이라 하겠다.